

# 耽羅의 學藝 · 言語 · 宗教의 研究

秦 元 日  
玄 平 孝  
梁 重 海

## — 目 次 —

I 緒 論	1. 考察對象의 限定
II 耽羅의 學藝	2. 國名「耽羅」등을 通해 본 耽羅語의 源流
1. 耽羅 學藝의 始源	3. 部族名稱을 通해 본 耽羅語의 源流
2. 三國時代 諸外國과의 交流와 耽羅의 學藝	IV 耽羅의 宗教
3. 高麗와의 關係와 耽羅 學藝의 發達	1. 原始信仰의 形態
4. 李朝初期의 耽羅(濟州) 學芸	2. 外來宗教와의 關係
III 耽羅의 言語	V 結 論

## I 緒 論

「耽羅」는 濟州島가 하나의 독립된 部族國家를 이루고 있을때의 名稱이다.

이 밖에 다시 「毛羅」「耽牟羅」「島夷」「屯羅」「瀛洲」「州胡國」「涉羅」「儋羅」「耽浮羅」등의 異稱도 여러 文獻에서 散見되고 있으나 그 代表格인 名稱은 亦是 「耽羅」인 것이다.

濟州島 原住民의 生活共同体가 發展하여 하나의 部族國家로 成立된 것이 언제부터냐 하는 問題를 밝히기 위해서는 아직도 考究의 餘地가 많다고 하겠으나 文獻上으로 나타나있는 기록으로는, 耽羅는 먼저 三國時代와 同時代에 독립된 部族國家로 형성되었다.

耽羅는 다음 高麗의 屬國時代를 거쳐 내려오다가 肅宗 10年 (西紀1105)에 와서 麗朝에서는 耽羅(毛羅)라는 國號를 廢止하고 耽羅郡<sup>1)</sup>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悠久한 歷史를 가진 耽羅國은 終結되고 만 것이다.

그 後 毅宗時에는 耽羅郡을 다시 縣으로 格下시켜 놓고<sup>2)</sup> 高宗時에는 이 「耽羅」를 다시 「濟州」라 改稱하게<sup>3)</sup> 됨으로써 이번에는 「濟州」란 名稱이 이 섬나라의 沿革上 비로소 登場하게 된 것이다.

1) 金錫翼 耽羅紀年(1918) 卷之一 p.7

2) " " " p.8

3) " " " p.10

그 後 忠烈王 元年에는 다시 「耽羅」란 名稱으로 부르게 하였다가<sup>4)</sup> 同王 21년에 가서 다시 「濟州」로 改稱하게<sup>5)</sup> 된 것이다.

그러므로 濟州島의 沿革上 「耽羅」라는 名稱은 高麗 忠烈王 21年 (元 成宗 元貞 元年, 西紀 1295)에 이미 없어진 것이지만 本論稿 「耽羅의 學藝·言語·宗教의 研究」에서 言語分野에 있어서만은 耽羅言語의 源流를 探究코자 하며, 學芸와 宗教分野에 있어서는 三國時代로부터 麗末까지의 耽羅(濟州)의 學芸, 宗教에 關한 문제를 對象으로 삼으려 하거니와, 어떤 問題에 關해서는 따로 李朝 초기의 그것에까지 미쳐 探究 言及하고자 한다.

文化現像에 있어서의 時代區分이 왕조의 年代期的으로 切斷되는 것이 아니라, 늘 상호침투루 흐름 속에서 把握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李朝初, 곧 太朝時에 와서, 僻地인 이 孤島에도 儒敎主義의 教育機關인 鄉校가<sup>6)</sup> 이어 졌다는 事實이라든가 上古 以來로 써오던 耽羅 固有의 爵號인 「星主」「王子」의 號稱의 廢止<sup>7)</sup> 되었다고 하는 事實들은 本論稿의 範圍를 李朝初에 까지 미치도록 함이 妥當함을 首肯케 할 것이다.

耽羅의 學芸, 言語 및 宗教는 이 地域이 지닌 宿命的인 特殊한 地理的인 환경과 이로 말미암은 歷史的인 與件에 隨伴하여 형성 발전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 耽羅의 學藝, 言語 및 宗教의 淵源과 그 特色을 探究함은 各分野에 亘한 濟州道關係 問題 解決의 基礎가 될 것이며, 이 結果는 또한, 韓國 古代의 學藝, 言語 및 宗教를 探究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確信한다.

## Ⅱ 耽羅의 學藝

### 1. 耽羅 學藝의 始源

古代에 있어서 하나의 독립된 部族國家를 형성하고 있던 耽羅는 四面 環海上의 섬나라였다는 地理的 條件으로 말미암아 漢土의 文化나 韓半島의 學藝와 接할 수 있는 契機는 매우 늦었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耽羅의 學藝는 그 後進性을 脫皮하지 못했으리라는 것은 推定하기에 어렵지 않으며, 耽羅 學藝의 始源期를 알수 있는 文獻도 남아 있지 않다.

學芸가 文字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면, 耽羅 學藝의 源流가 되는 漢字文化가 韓半島에 들

4) 金錫翼 耽羅紀年(1918) 卷之一 p. 16

5) " " " p. 19

6) " " 卷之二 p. 31

7) " " " p. 31

어은 時期 및 耽羅에 流入한 時代를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

먼저, 韓半島에 漢字文化가 들어온 時期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韓半島에 漢字文化가 들어온 것은 西紀前 2世紀頃으로 推定할 수 있으니, 그것은 燕人 衛滿이 韓半島의 北部에 와서 衛滿朝鮮을 건립한 것을 기점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어 西紀前 108년에는 漢武帝가 또한 韓半島의 北部에 四郡을 두어 다스렸던 것이니, 韓半島의 北部에는 西紀前 2世紀로 부터 西紀 紀元을 前後한 時期에는 이미 漢字文化가 徐徐히 일어나고 있었음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漢四郡은 西紀前 108年 부터 西紀後 200년까지 近 300年間 繼續되었던 것이므로 이 사이에 韓族은 漢族과 接하면서 그들의 學藝의 影響을 크게 받았을 것임은 當然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耽羅의 先民社會에 한자문화가 들어온 時期도 이 漢四郡 時代였으리라고 推斷할 수 있는 可能性을 우리는 發見할 수 있다.

西紀 1928년에 濟州島 山地港 築港作業 採石場에서 熔岩으로 密閉된 동굴이 나타났던 것인데, 그 동굴속에는 前漢時代의 五銖錢과 古鏡, 그리고 王莽時代에 鑄造 使用하였던 貨幣인 貨布를 發掘해냈던 것이다.

이 貨布는 「新」의 貨幣요, 「新」은 西紀 8年~23年 사이에 있었던 나라이며, 「新」이 滅亡한 後, 東漢의 光武帝는 이를 廢止하였으므로 이 貨布의 鑄造와 使用은 西紀 14년부터 同 23년까지 14年間이 었던 것이다.

이 貨布가 어떠한 經路를 밟아 濟州島의 암벽 동굴에 와 박혀있게 되었었나를 探究함은 興味로운 資料가 될 수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推測컨대 이 貨布는 漢四郡 時代의 漢 商人들이 가져있었던 것으로 보아지며, 이 漢 商人들과 耽羅先民들과의 交易 過程에서 이 貨布는 耽羅에까지 왔던 것으로 推定할 수 있다.

이러한 推定이 可能하다면 西紀 紀元을 前後한 時期에 耽羅人은 漢土人과 接하고 있었으며, 이 무렵을 前後하여 絕海 孤島인 이 耽羅에도 한자문화가 들어와 있었지 않았나 하는 問題를 推定해 낼 수 있으나, 이 貨布가 玄武岩 岩石의 密閉된 동굴 속에서 發見되었다 함은 이 貨布가 鑄造 使用되었던 西紀 14年 以後에 濟州島에는 큰 火山 爆發이 있었다는 事實이 證明되며, 이러한 玄武岩 熔岩이 全島의으로 存衍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이 火山의 慘禍는 全島의으로 避할 수 없었으리라 보아진다. 11

西紀 紀元前의 耽羅先民이 이 火山 폭발 뒤에도 살아남아 있었는지 與否에 關한 問題는 오늘도 濟州島 北部에 殘存해 있는 支石墓群의 유적과 三姓神話와 結付시켜 問題性이 提起되겠거나 하는 本主題와 關聯이 없음으로 別途로 다루고자 한다.

1) 金泰能 濟州島略史稿 (1969年 濟州年鑑) p. 139

「事文類聚」地道部條에 依하면 高麗 文宗朝時에 屯羅人이 中國 蘇州 崑山縣 海岸에 漂着하였고 그들은 그 곳 地方官이 묻는 말에 書答하였거니와 그 文字는 그들 固有의 文字인듯한 雁行 文字였다고 되어 있다.<sup>2)</sup>

이 記錄을 들어 或 屯羅, 곧 耽羅에는 그들 固有의 文字가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好氣心도 짜아낼 수 있으나, 그 무렵 耽羅官廳과 高麗朝廷 사이에는 文書 交流가 많았지만, 그 文字는 말 할 必要도 없이 한자였던 것이다.

文獻上 耽羅와 韓半島와의 交流史實을 찾아 볼수 있기는 三國時代에 들어와서부터였으니, 三國時代에 와서 韓半島 諸部族國家의 學芸는 이 絕海孤島의 耽羅에 크게 影響을 주게 되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 2. 三國時代 諸外國과의 交流와 耽羅의 學藝

### (1). 百濟와의 交流와 耽羅의 學藝

百濟는 耽羅와 가장 近距離에 있는 國家로서 일찍부터 耽羅와는 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진다. 文獻上의 기록으로는 文周王 2年(西紀476)으로 나타나 있다.

「百濟文周王二年丙辰拜耽羅國使者爲恩率」

李元鎮「耽羅志」<sup>3)</sup>

「百濟文周王二年即南宋蒼梧王元徽四年丙辰也夏四月獻方物于百濟王喜拜使者爲恩率」

金錫翼「耽羅紀年」<sup>4)</sup>

「百濟文周王二年丙辰拜耽羅國使者爲恩率」

金斗奉「耽羅誌」<sup>5)</sup>

「百濟文周王二年丙辰에 方物을 百濟에 獻하니 王이 喜하여 耽羅王으로 佐平을 삼고 使者를 拜하여 恩率(百濟官名)을 삼다」

淡水契「耽羅誌」<sup>6)</sup>

高句麗는 長壽王 以來 南進政策을 씀으로써 漢江流域에서 자주 衝突을 일으켰고 百濟의 蓋鹵王이 죽음을 당한 일까지도 發生하였던 것이다. 蓋鹵王의 아들인 文周王은 서울을 漢城에서 부터 熊州(公州)로 옮기고 新羅와 結托하면서 高句麗와 對抗해왔던 것이다.

2) 金錫翼 耽羅紀年(1918年) 外書條 p. 4

金泰能 濟州島略史稿(1969 濟州年鑑) p. 147

3) 李元鎮 耽羅志(1653) 建置沿革條 p. 2

4) 金錫翼 耽羅紀年(1918) 外書條 p. 9

5) 金斗奉 耽羅誌(1933) 建置沿革條 p. 1

6) 淡水契 " (1954) p 259

隣接國인 耽羅로서는 이와 같은 國際情勢下에서 文周王 2年(西紀476)四月에 使者를 百濟에 보내어 方物을 바치고 臣事하기를 請하였으므로 百濟 朝廷에서는 耽羅國 使者에게 三品官職인 恩率을 주고 돌려보냈던 것이니, 이것이 耽羅와 百濟와의 最初의 公式 交流라 할 만 하다.

百濟와의 關係는 다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東城王二十年庚申以耽羅不修職貢親征至武珍州(今光州)其主聞之遣使乞罪乃止」

李元鎮「耽羅志」<sup>7)</sup>

「東城王二十年秋八月王以本國不修貢賦親征至武珍州(今光州)國王聞之遣使乞罪乃止」

金錫翼「耽羅紀年」<sup>8)</sup>

「東城王二年庚申以耽羅不修職貢親征至武珍州(今光州)其主聞之遣使乞罪乃止」

金斗奉「耽羅誌」<sup>9)</sup>

「東城王二年丙申에 耽羅가 職貢을 不修한다 하야 親征하고 武珍州(光州)에 至하니 耽羅主聞之하고 使者를 遣하야 謝罪하니 百濟는 回軍하였다」

淡水契「耽羅誌」<sup>10)</sup>

上記의 기록중 東城王 20年이나 同 2年이나 하는 問題가 있겠으나 金斗奉 編「耽羅誌」나 淡水契 編「耽羅誌」는 先揭한 李元鎮 編「耽羅志」나 金錫翼 編「耽羅紀年」을 參照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때, 先揭한 두 文獻의 記錄대로 「東城王二十年」으로 보고자 한다.

곧, 耽羅는 文周王 2年에 百濟와 臣事關係를 맺고 交流를 始作하였으나 유구한 역사를 가진 耽羅는 自治國으로서 百濟에 對하여 진심으로 臣事하지는 아니하였던 까닭에, 그 22年後인 東城王 20年(西紀498)에 百濟王은 親히 耽羅 征伐에 나서 武珍州(光州)에 이르자 이 소식을 들은 耽羅王은 황급히 使者를 보내어 사죄를 하였던 것이니, 이래서 百濟와의 關係는 百濟가 羅唐聯合軍에 依하여 멸망될 때 까지 계속되었던 것이다.

上記 東城王時代를 前後한 百濟의 漢字文化 내지 學藝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 문제는, 西紀 1971年7월에 上記 東城王의 다음 代인 武寧王(西紀501~522)陵에서 발굴된 各種 遺品과 거기에서 나온 誌石에 새겨진 文章을 보고도 알 수 있는 바이니, 그 당시 그렇게 高度로 發達했던 百濟의 漢文文學과 藝術이 耽羅에 영향을 주었을 것임은 틀림없다 하겠다.

7) 李元鎮 耽羅志 (1653) 建置沿革條 p. 2

8) 金錫翼 耽羅紀年 (1918) 外書條 p. 10

9) 金斗奉 耽羅誌 (1933) 建置沿革條 p. 1

10) 淡水契 (1954) 沿革條 p. 260

## (2) 新羅와의 交流와 耽羅의 學藝

耽羅 初有의 人文地誌인 李元鎮 編 「耽羅志」를 비롯한 몇몇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三姓神話에서는 耽羅에서 최초로 交流한 部族國은 新羅로 되어있다.

「新羅時高厚高淸及季(季失其名)航海來朝王喜號厚曰星主淸曰王子季曰徒內賜國號曰耽羅其後服事百濟」

李元鎮 「耽羅志」<sup>11)</sup>

「高乙那十五代孫高厚高淸及季(失名)兄弟三人造舟渡海泊于耽津(康津)蓋新羅盛時也于時客星見南方太史奏曰異國人來朝之象也(中略)國號曰耽羅以來時初泊耽津朝新羅故也(中略)烈宗時遣廣巡使良宥按撫使夫繼良入朝重賞爵祿且賜衣冠改良爲梁」

金錫翼 「耽羅紀年」<sup>12)</sup>

「新羅時高厚高淸及季(失名)航海來朝王喜號厚曰星主淸曰王子季曰徒內賜國號曰耽羅」

金斗奉 「耽羅誌」<sup>13)</sup>

「新羅時에 十五代孫高厚高淸(孕)季(失名)兄弟三人이 造舟渡海하야 耽津(康津)에 泊하니 是는 新羅全盛時代라 太史가 奏하되 客星이 南方에 現하니 異國人이 來朝할 징조라 하더니 未幾에 果然 高厚等이 至한지라 王이 喜하야 厚를 星主(客星이 動함을 意味한)淸을 王子季를 徒內라 하고 國號를 耽羅라 하야 各其實蓋와 衣帶를 賜하니 이것이 內陸과의 交通의 始初요 일로부터 新羅에 服事하야 高를 星主良을 王子夫를 徒內라 하다」

淡水契 「耽羅誌」<sup>14)</sup>

濟州의 대표적인 上記 諸文獻에서는 위에서 摘示한 바와 같이 耽羅가 최초로 交流했던 內陸의 部族國家로는 新羅를 지적하고 있으며 耽羅라는 國號도 新羅朝에 耽津으로 들어갔다는 緣由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되어있다.

耽羅가 먼저 服事한 나라가 新羅나 百濟냐 하는데는 「耽羅紀年」의 編者 金錫翼이 이미 該書에서 問題삼고<sup>15)</sup> 있지만 本論稿에서는 그것이 重要한 問題가 아니므로 論外로 치고자 하거니와 要는 新羅 盛時에 耽羅가 新羅와 接觸交流하고 있었던 事實만은 수긍할 수 있으며, 「廣巡使」나 「按撫使」나 하는 職名도 漢字文化下의 職名임은 勿論, 良宥, 夫繼良이 新羅 朝廷에서 重賞을 받고 또한 爵祿까지 받았다는 것과 新羅王朝가 賜姓하는 慣例에 依하여 良乙那의 後孫인 良宥에 게 「梁」姓을 주어 「改良爲梁」하였다는 事實, 그리고 梁宥 以後로는 良姓을 모두 「梁」으로 고쳐

11) 李元鎮 耽羅志 (1653) 建置沿革條 p. 1

12) 金錫翼 耽羅紀年 (1918) 外書條 p. 8~9

13) 金斗奉 耽羅誌 (1933) 建置沿革條 p. 1

14) 淡水契 (1954) p. 260

15) 金錫翼 耽羅紀年 (1958) 外書條 p. 10

였다고 하는 사실들은 耽羅 社會에 漢字文化에 젖은 新羅盛時의 文化가 浸透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커다란 증거의 하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 耽羅에 들어오기 시작한 新羅의 文物 學藝가 新羅의 統三 以後는 더욱 큰 힘을 가지고 流入하였을 것으로 보아진다.

### (3) 高句麗와의 關係와 耽羅의 學藝

耽羅와 高句麗와는 公的關係는 없었을는지 모르나 交易을 통한 交流는 일찌기 있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耽羅紀年」外書에 引用된 「後魏書」의 기록을 보면,

「正始中世祖引見高句麗使芮悉弗悉弗曰黃金出自扶餘珂則涉羅所產今扶餘爲勿吉(靺鞨)所涉羅爲百濟所並」

이러한 句節을 찾아볼 수 있다.

高句麗 文咨王 13年(西紀503)에 고구려의 使臣 芮悉弗이 後魏에 入朝하였을 때, 그는 지금까지 常例的으로 進納해오던 金과 珂를 進納하지 못한 까닭을 魏의 世祖에게 말했던 것인데, 그 理由라는 것은 「金은 扶餘에서 產出하고, 珂는 涉羅 特產인데, 지금 涉羅는 百濟에 併呑되어 있으므로 이 貴品이 王都 平壤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이 말에는 麗朝가 魏의 힘을 빌어 百濟를 併呑하고자하는 外交的인 內心도 없지는 않았으리라고 보아지지만, 어쨌던 耽羅產 珂가 高句麗까지 交易되다가 耽羅가 百濟 東城王 20년에 百濟에 臣事하기 시작하면서는 그 交易의 길이 막혔는지 않았느냐 생각할 수도 있다.<sup>16)</sup>

이 사실은 山地港 築港工事中 암굴 속에서 漢貨幣가 出土되었다는 事實과 비추어 볼 때 더욱 수궁이 가는 일이며, 이러한 交易經路를 통하여 고구려의 文物과 學藝는 아직도 未開狀態에 있는 耽羅사회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아진다.

### (4) 唐및 倭와의 關係와 그 影響

「耽羅紀年」에는 耽羅와 唐및 倭와의 關係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sup>17)</sup>

「國主佐平(百濟一品官名)徒冬音律朝新羅時文武王二年唐高宗龍朔二年壬戌春二月也五年乙丑(唐麟德二年)秋八月遣使借唐鎮守劉仁軌及新羅百濟倭人三國使者浮海如唐會祀泰山九年己巳(唐總章二年)春三月遣王子久麻伎等如倭通聘且求五穀種來」

16) 金泰能 濟州島略史稿(1969年 濟州年鑑) p.146

17) 金錫翼 耽羅紀年(1918) 外書條 p.10~11

同書에는 다시「新唐書」所收 기록을 다음과 같이 실고 있다.

「新唐書高宗龍朔初有澹羅者其王儒理都羅遣使來朝貢方物國居新羅武州(今光州)南島上俗樸陋衣犬豕皮夏居草屋冬窟壘地生五穀耕不知用牛以鐵齒把土初附百濟後附新羅麟德二年乙丑酋長來朝從帝至太山」

이 기록으로 보건데, 唐 高宗때에 耽羅 國主는 康將 劉仁軌와 新羅, 百濟, 倭 등 三國 使者와 더불어 唐에 使者를 보내어 入朝시켰으며, 이 때에 唐帝가 泰山에서 行하는 天祭에도 參加했다는 것이며, 한편 倭와도 通聘하여 五穀의 種子도 求해 왔다는 것이다.

「新唐書」의 기록에서 當時 異國人的 눈에 비친 耽羅(儋羅)人의 생활은 참으로 原始性을 脫皮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日本書紀」齋明記에 齊明天皇 6年 5월에 耽羅王子 阿波岐가 처음으로 日本에 入朝하였다고 하였으며, 同書 天智記에는 天智天皇 8年에 耽羅 使者가 와서 五穀種子를 求하므로 이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는바<sup>18)</sup> 이는 前掲「耽羅紀年」의 기록중 春三月에 耽羅王者 久麻伎等を 倭에 보내었다는 기록과 五穀種子를 求해 왔다는 기록에서 왕자의 이름과 時期에 있어서 만은 若干의 차이가 없지 않으나 두 文獻의 기록을 對照 檢討하여 보면 그러한 事實이 있었다는 것만은 首肯할 수가 있다.

이렇듯 耽羅가 唐과 倭와 交流하게 된 時期는 百濟가 亡한 西紀 660年을 前後한 무렵이며, 唐은 이미 文物이 高度로 發達한 나라였었고 倭도 백제의 漢文文化를 받아들인 以後의 일이었으므로, 唐이나 倭와 이만큼 交流하기에 이르렀던 耽羅의 上層社會에는 唐이나 倭로 부터도 漢文文化와 學藝의 影響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것임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 (5) 三國時代의 耽羅의 學藝

韓半島의 北部에는 高句麗가, 그리고 南部에는 百濟와 新羅가 鼎立하고 있던 三國時代에 耽羅는 百濟나 新羅에 對해서는 直接的인 公的 外交關係 乃至 臣事關係가 맺혀져 있었기 先進國인 이들 나라로부터 文物과 學芸가 적지않게 流入되어왔을 것임은 다시 말할 必要가 없으며, 高句麗와, 그리고 唐이나 倭로 부터도 적지않게 影響을 받았을 것임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특히 百濟가 滅亡한 다음 해인 新羅 文武王 元年(西紀662)에 耽羅왕 佐平徒冬音律은 新羅에 投降하였던 것이니, 新羅에서는 耽羅王에게 百濟의 舊官職인 佐平職을 주었고, 이래서 耽羅는 꾸준히 新羅를 敬事하게 되었으니, 新羅의 統三 以後는 新羅에서 크게 發達한 唐文化및 漢文 學芸가 屬國인 耽羅의 學芸에 絕對的인 影響을 주었던 것임은 推測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三國時代 當時의 耽羅의 學芸나 이에 關한 기록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음은 哀惜한

18) 金泰能 濟州島略史稿 (1969年 濟州年鑑) p.146

일이다.

오늘에 그 文獻이나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못한 까닭에 關係서는 다음과 같이 말 할수 있을 것 같다.

첫째, 耽羅는 絶海 孤島란 地理的 환경에 놓여있을 뿐 아니라 文物이나 學藝가 열리기 시작 하면서부터는 늘 外勢의 支配下에 있었기에 臣屬國인 耽羅의 學芸를 대수롭게 보아주지 않았기에 그들의 文獻에 실지 않았을 것이라는 點을 指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조에 들어와서 「耽羅志」나 「耽羅紀年」이니 하는 따위의 人文地誌들이 編纂될 때도 그 資料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이니 「耽羅紀年」의 「金時字序文」에서도 「麗以前則載籍浸患難於考證」이라고 恨歎케 한 것이다.

둘째, 이와같은 어려운 與件下에서 이루어진 참으로 稀少한 數量의 文籍들일망정 잇달은 亂離로 말미암아 또한 온전히 保全할 수가 없었다는 點을 指摘할 수 있다. 이 點에 대해서는 「耽羅紀年」의 編者 金錫翼도 「耽羅紀年義例」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곧

「本島爰自開荒上下數千載治亂得失交聘通朝頻頻可述而徒以賊路要衝屢經兵燹載籍漫滅而今雖欲一一攷徵顧已難矣」

耽羅는 麗朝 李朝에 내려 오면서 文幸奴의 措亂, 三別抄의 入據와 麗蒙軍의 討伐戰, 元의 耽羅 지배와 이에 따른 大小事件, 屋主와 王子를 逐出하고 麗廷의 京來官을 排斥한 金成등의 叛亂事件, 金志의 庚寅民擾와 그 뒤를 이은 丙申民擾, 房屋七亂, 李在守亂等等 耽羅의 좁은 版圖內에서 大小 난리가 數없이 일어나는 동안 많은 文籍들이 消失됨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

세째, 世宗 十七年の 官府失火事件으로 貴重한 文籍들이 消失하여 버렸다는 事實을 指摘할 수 있다.

「耽羅紀年」에서는 당시의 失火事件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上下千有餘年間必有州乘以記時事我世宗十七年安撫使崔海山時官府失火文籍盡爲灰燼盡哉」<sup>19)</sup>

이 火災로 州乘을 비롯 官府所藏의 모든 文籍이 一時에 灰燼되어버렸다는 것이니 아까운 일이다.

### 3. 高麗와의 關係와 耽羅 學藝의 發達

#### (1) 遣使의 往來와 學藝의 流入

耽羅와 高麗와의 最初의 關係를 「耽羅紀年」에는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19) 金錫翼 耽羅紀年(1918) 卷之二 p. 35

「高麗太祖二十一年(後晉高祖天福三年)冬十一月國主高自堅遣太子末老入朝王仍賜屋主王子爵使之世一朝見」<sup>20)</sup>

高麗에서는 太祖 21年(西紀938)에 耽羅王에 對하여 新羅時代의 舊封爵이었던 屋主職을 封하였더니 耽羅에서는 隸屬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대마침 三國을 統一하고 新興 集權의 封建國家로 出發한 高麗는 耽羅의 態度를 默認할 수 없다 하여 軍士를 이끌어 討伐하니 耽羅王 高自堅은 屈服하고 太子 末老를 高麗에 入朝시켰다. 高麗 太祖는 高自堅으로 屋主를 삼고 梁具美로 王子를 삼아 耽羅에 封하였던 것이다.

이로부터 耽羅와 高麗와의 主從關係는 시작되었으니 後日 麗廷에서는 屋主에게는 高麗 官職인 擊將軍, 定遠將軍등을 加하고, 王子에게는 中虎將軍등을 加하면서, 漸次로 고려화해가는 政策을 쓰기 시작 하였다.

高麗朝에서는 해마다 대개 11월에 國家의 大祭典으로 八關會를 베풀어 國家의 平安과 發展을 祈願했던 것인데, 高麗의 9代 德宗때 以來 耽羅에서는 八關會에 賀使를 보내고 方物을 獻納하였던 것이다.

이 밖에도 高麗는 11代 文宗 6年以來 歲貢을 바치도록 하였으며,<sup>21)</sup> 各種 特産物을 비롯 漢拏山産 造船材와 馬匹까지도 증발하여 갔으며, 肅宗 10年(1105)에는 塔라라는 國號도 廢止토록하고 耽羅郡으로 改稱하였으니<sup>22)</sup> 여기에 悠久한 歷史를 가진 耽麗國은 獨立國으로서의 증지부를 적고 高麗郡縣의 一部로 되고 말았다.

그러나 一方 이러한 時期를 前後하여 耽羅의 上層社會에서는 文運이 열리고 학예가 發達하여 耽羅出身으로서도 고려조 中央政府에 登用되는 者가 續出하기에 이르렀다.

## (2) 戰亂下의 耽羅의 학예

耽羅가 高麗 郡縣의 一部로 併合된 以來 大小 병란과 異民族의 발급아래 수 없이 苦難을 겪었다.

元宗年代에 江華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三別抄가 珍島를 거쳐 來侵하자, 이어 麗蒙聯合軍의 討平軍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始作된 亂은 39년간이나 繼續되는 동안, 耽羅는 그 全域이 酷甚한 災禍를 피할 길 없었으나, 그동안 京師의 學者 僧侶 女人들의 往來가 많았고, 이로 말미암아 農蠶法의 改善과 生活方式의 향상에 큰 계기가 되었음이 사실이나, 특히 京師의 學風이 傳來되어 耽羅의 學芸에도 큰 변화를 주었던 것을 看過할 수 없다.

20) 金錫翼 耽羅紀年(1918) 卷之一 p.1

21) " " " p.3

22) " " " p.7

(3) 耽羅 學藝의 開花

三國時代以來 百濟, 新羅 등 韓半島 先進國의 文化를 받아들임으로써 서서히 싹터오던 耽羅의 學藝는 高麗朝에 들어오면서 開花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耽羅출신으로 高 維가 登第하고 顯官을 歷任하게 되면서, 그의 아들 高兆基가 뒤를 이어 登第 出世하였으며, 高兆基의 孫이 또한 그의 뒤를 이음으로써 이들 高氏 一門은 耽羅출신으로서 정치적으로도 최초로 中央政府에서 그 지위를 確保함은 물론, 文學과 筆法에 있어서도 京御에 명성을 떨쳤던 것이니, 여기 耽羅學藝의 기틀이 서게 된 것이다.

耽羅에 관련된 諸文獻에서 이 高氏 門中 父子孫 三人에 관한 기록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高 維

「(文宗)十一年春正月戊寅朔放朝賀己丑以高維爲右拾遺中書省奏維系出耽羅不合諫省如惜其才請授他官從之」

「高麗史」<sup>23)</sup>

「靖宗時賓貢登第官至右僕射高氏筮仕王國者自維始」

李元鎮「耽羅志」<sup>24)</sup>

「(文宗)十一年(宋嘉祐二年)春正月王授高維爲右拾遺維本國人靖宗朝以賓貢登第至是特拜是職中書省奏曰維耽羅人不合諫才請援他官後官至右僕射」

金錫翼「耽羅紀年」<sup>25)</sup>

「以賓貢登第官至右僕射」

金斗奉「耽羅誌」<sup>26)</sup>

「高麗靖宗朝에 賓貢으로 登科하고 文宗朝에 차차昇進하여 官이 尙書右僕射에 至하다. 高氏王國에 筮任함이 自公始라.

淡水契「耽羅誌」<sup>27)</sup>

○ 高兆基

「維之子初名唐愈性慷慨涉獵書史睿宗朝登第出守南州清白奉公官至政堂文學參知政事中書侍郎平章事」

李元鎮「耽羅志」人物條

「毅宗三年(宋高宗紹興十九年)夏四月王授高兆基中書侍郎平章事兆基初名唐愈本國人維子性慷慨涉獵經史尤工五言詩睿宗朝登第嘗爲臺諫直言不諱多所裨益歷政堂文學參知政事至是進拜平章事」

23) 高麗史(1454) 世家 卷八 文宗條

24) 李元鎮 耽羅志(1653) 人物條 p. 54

25) 金錫翼 耽羅紀年(1916) 卷之一 p. 4

26) 金斗奉 耽羅誌(1933) 科官條 p. 80

27) 淡水契 (1954) 人物條 p. 359

## 金錫翼「耽羅紀年」卷之一

「維之子登第官至政堂文學參知政事進中書侍郎平章事」

金斗奉「耽羅誌」科宦

「維의子니그性品이慷慨하야文學에天才있어經學을通하고史學에達하여더욱五言詩에能하야睿宗朝에登科하야毅宗朝에官이中書侍郎平章事에至하다.」

淡水契「耽羅誌」人物條

## ○ 高 邁

「兆基之孫爲本州留總官」

李元鎮「耽羅志」人物條

「高邁本國人也以文章筆法鳴 元宗朝入王京擢第直入金閩至是朝廷討賊盡殲遂出爲本國留總管安集餘民」

金錫翼「耽羅紀年」卷之一

「兆基之孫登第直入金閩官至監察御史」

金斗奉「耽羅誌」科宦條

「一作迪하니號는谿林이라고도하고또는林谿라고도하야文章筆法으로하야當世에鳴하다兆基의孫이니仁宗朝에登第하야金閩에直入하고元宗이公이廉直함을聞하고安車로迎하야監察御史兵部尙書를拜하다麗史에有傳」

淡水契「耽羅誌」人物條

위에서 「高麗史」新舊「耽羅誌」「耽羅紀年」등 탐라에 관계된 문헌중 高維, 高兆基, 高邁 등에 관한 기록만을 摘示하였거니와 탐라인으로 麗朝에 처음으로 出仕한 高維를 비롯한 三父子孫이 잇달아 登第하고 그만큼 重用되었다고하는 것은 탐라의 上層社會에 이미 學藝의 기틀이 확립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上記 引用文에서도 高兆基는 文學에 천재 있어 經學과 史學에 通達하였을뿐 아니라 五言詩에 特히 能했다고 하였으며 또한 文章筆法으로도 세상을 울렸다고 하였으니, 이들을 중심으로한 末期의 耽羅의 上層社會에는 文學과 書芸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淡水契 編「耽羅誌」에는 前記 三氏에 관한 기록이 다시 보이니<sup>28)</sup>

高 維 南方文學이自公始라

高兆基 五言詩를善하야 東人詩選에登하다.

高 邁 文章筆法으로鳴世하다

이와 같이 그들이 문학이나 서예에서 一世에 뛰어남을 보이고 있으며 「耽羅紀年」에는 高兆基

28) 淡水契 耽羅誌(1594) 文學條 P. 378~379

의 五言時「珍島碧波亭」<sup>29)</sup>과 高適의 七言詩「觀風上國吟」<sup>30)</sup>이 수록되어 있어 또한 그들의 문학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麗代의 耽羅는 長期에 걸친 金通精의 亂이나 元의 占領政策등을 비롯 수차례 巨한 作亂이 있어 그 災禍가 적지 않았으나, 한편 이러한 內外事件은 外部文化 特히 京師 學風 流入의 계기가 되고 있음을 看過할 수없음은 앞에서도 이미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회환경 속에서 佛門의 儒侶로서도 학문을 깊이 닦은 자가 적지 않았으니, 山房法僧 慧日은 그 代表的인 例가 될 것이다. 慧日에 관해서 「耽羅紀年」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

「時有釋慧日山房法僧也西遊中國名震道場尤工於詩其所題詠多見輿誌」<sup>31)</sup>

곧, 慧日은 中國의 名刹도 많이 巡覽하면서 見聞을 넓혔을뿐 아니라 문학에도 높은 경지를 보인 名僧이었던 것이니, 李元鎮 「耽羅志」에도 그가 妙蓮寺에서 감회를 읊은 七言詩<sup>32)</sup>를 비롯 여러篇의 詩가 수록되어 있어 그의 문학의 一端을 보여주고 있다.

慧日에 관해서는 淡水契 「耽羅誌」에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按高麗正言李穎滴莞島其叔慧日來訪之因入濟州瓶寺以居之」<sup>33)</sup>

이 기록에 의하면 慧日은 본시 고려 사람으로 조카인 李穎이 莞島에 謫居生活을 하고 있었기에, 그 조카를 찾아왔다가 이 섬에 들게 되어 절을 짓고 佛道를 닦는 한편 詩文을 해은 것으로 보아진다.

耽羅時代의 건축공예로는 遺存되어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三別抄時에 金通精이 現涯月面高城里에 缸波頭內外城을 쌓고 그 內城에 宮殿을 지었었으나 오늘은 그 遺趾에 瓦片이 남아있을 뿐이요, 忠烈王 20年代에는 元世祖의 皇后인 皇太后的 요청으로 元의 牧子들은 水精寺와 元堂寺를 짓고 水精寺에는 鐵佛像 二座를 安置했고 元堂寺에는 五層石塔을 建立하였었으나 水精寺의 鎔佛像은 李朝 肅宗때에 牧使 李衡祥에 의하여 投海된듯하고 오늘에는 元堂寺趾에 五層石塔단이 남아있다.

29) 金錫翼 耽羅紀年(1918) 卷之一 P 7

30) 金錫翼 耽羅紀年(1918) 卷之一 p.17

31) \* " P.30

32) 李元鎮 耽羅志(1653) 佛宇條 p.42

33) 淡水契 耽羅誌(1954) 僧侶條 p.423

現 中文面 河源里에도 元의 牧養時代に 建築되었던 것으로 推定되는 法華寺가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그 웅장한 건축물의 柱礎의 一部만이 남아있으며, 거기 安置되었던, 元의 彫刻工이 鑄造한 것으로 생각되는 銅佛像은 太宗때에 明에서 가져간 것으로 되어있다.<sup>34)</sup>

麗代의 耽羅는 長期에 걸친 三別抄亂과 元의 占領政策등 內外的으로 多事多難하였기에 民衆의 士달림도 얼마나 많았겠느냐 함은 能히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러한 大小 事件을 계기로 京師의 文物이나 學藝가 耽羅內로 流入하게 되는 계기를 또한 마련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또한 耽羅출신으로서도 學問을 닦고 登第하면 麗廷에 出仕할 수 있었기에 高維以來로 많은 학자 顯官을 배출하게 되었으며, 이로서 耽羅의 上層社會는 물론, 僧侶들에 이르기까지 學風이 감돌아 있음을 알 수 있다.

#### 4. 李朝初의 耽羅(濟州)學藝

##### (1) 李朝初의 耽羅(濟州)社會와 學藝

耽羅는 高麗 肅宗10년에 麗朝에 依하여 國號가 廢止되고 耽羅郡으로 改稱됨으로써 悠久한 역사를 가진 耽羅國은 高麗國의 郡으로 併合되어버렸던 것이나 그 後 毅宗때에는 耽羅郡을 다시 縣으로 格下시켰고 高宗때에는 耽羅를 다시 濟州라 改稱하였던 것임은 上述해은 바와같다.

李氏朝鮮이 建國되면서 國初부터 이 곳에는 鄉校<sup>35)</sup>를 세워 地方人 子弟들을 교육시켜 國試를 應하게 하였으며, 武人에 있어서도 志願에 따라 人才를 뽑아 出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었다.<sup>36)</sup>

太宗 二年에는 星主와 王子의 호칭을 廢止함으로써<sup>37)</sup> (二年明建文帝四年冬十月星主高鳳體王子文忠世入朝以爲星主王子之號似涉僭擬請改之於是以星主爲左都知管王子爲右都知管始國除.)濟州는 명실공히 李朝 制度下的 縣으로서 儒敎國是의 中央行政府의 施策에 따라 새로운 학예의 氣風이 일어났던 것이다.

곧, 太祖 때에 鄉校가 지어지고 (「太祖二年 鄉校成」紀年 卷之二), 定宗 때에는 判官으로써 教授를 兼하였다가 (「定宗二年 明建文帝 二年 夏以判官兼教授」同上), 太宗 때에는 教授를 따로 두었으며, (「太宗十三年 明永樂十一年別置教授」同上) 世宗 때에 와서 安撫使 崔海山은 더욱 학예를 이르렀던 것이다. (「十五年 明宣德 八年 安撫使崔海山來, 崔海山興學勸農聞」同上)

34) 金泰能 濟州島略史稿 參照

35) 金錫翼 耽羅紀年 卷之二 p.31

36) 睿宗實錄 睿宗三年 閏二月乙丑條 參照

37) 金錫翼 耽羅紀年 卷之二 p.31

世宗 17년에는 德化의 目的으로 弘化閣을 지었으나, 이 弘化閣을 지을 때 官府의 失火로 耽羅 傳來의 많은 文籍을 불태워 버렸음은 아깝기 짝이 없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十七年 明宣德 十年 冬安撫使崔海山建弘化閣時官府失火文籍灰燼」同上) 世宗 30년에는 武藝訓練場으로 觀德亭이 지어졌다는 것도 特記 할만한 일이다.

觀德亭은 그 후에 몇차례의 重修를 거쳐 現存하고 있으나 아직도 安平大君의 扁額筆蹟이 남아 있을뿐 아니라, 亭內에는 作者未詳인 훌륭한 壁畫가 있어 文化財 보물 第322號로 지정되어 있다.

(2) 學者들의 輩出

李朝初의 濟州에는 麗末에 이어 學風이 크게 振作되어 많은 학자가 배출되었으니 제주관계 문헌 몇몇에 수록된 인물 가운데 李朝初期의 人物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高得宗

「登第官至漢城判尹(下略)」

李元鎮「耽羅志」人物條

「字子傳本州人也上護軍鳳智子性至孝文章書法亦遒古雅太宗朝陰補直長甲午對策登第又中重試官至漢城判尹孝行旌閭京司子弟職科自公始設(下略)」

金錫翼「耽羅紀年」卷之二

「文科官至漢城判尹」

金斗奉「耽羅誌」科宦條

「字는子傳이오號는靈谷이니性이至孝하며文章書法이또한高雅하고奇氣○節이蔚然히平章事風이有하다. 李朝世宗朝에官이漢判城尹에至하다. 公이遊宦時에俸祿이不足하므로朝廷에서子弟職科를特設하여優禮하니그後遊京者의職科가되었다가甲午更張時에廢止되었다. 四子가有하니다文學으로有名하야長子台弼은世祖朝에登科하야官이吏曹參判에至하고次子台鼎은文科壯元으로官이奉常寺正에至하고三子台輔는官이司僕判官에至하고四子台翼은文科壯元으로官이司諫에至하다. 弘化閣三字는公의手蹟이오孝行이有하야태종조에事聞旌閭」

淡水契「耽羅誌」人物條

○ 高台弼

「得宗之子登第官至開城府留守」

李元鎮「耽羅誌」人物條

「文宗辛未登第歷麗清顯至吏曹參判知中樞」

金錫翼「耽羅紀年」卷之二

「得宗之子文科官至開城留守」

金斗奉「耽羅誌」科宦條

淡水契「耽羅誌」에는 高得宗과 並記

## ○ 高台鼎

「台獨之弟己卯科壯元官至奉常寺正」

李元鎮「耽羅誌」人物條

「世祖己卯登第壯元至奉常寺正」

金錫翼「耽羅紀年」卷之二

「得宗之次子文科官至奉常寺正」

金斗奉「耽羅誌」科宦條

淡水契「耽羅誌」에는 高得宗과 並記

## ○ 金良弼

「能文善書中生員明倫堂有懸板詩白鹿洞規乃其所寫也冲庵風土錄亦稱金良弼」

李元鎮「耽羅誌」人物條

「本州人也其先慶州能文善書中生員官教授明倫堂有板上詩(中略)白鹿洞規乃其所寫也」

金錫翼「耽羅紀年」卷之二

「官至教授」

金斗奉「耽羅誌」科宦條

「濟州邑寧坪里人이니中宗朝에 生員에 中하고能文善書하야官이濟州教授에 至하다. 明倫堂懸板詩가有하다.

淡水契「耽羅誌」人物條

新舊「耽羅誌」등 濟州關係文獻에 올라있는 高得宗과 그의 四子, 그리고 金良弼등은 李朝初期에 學問과 詩藝, 書藝에 能한 濟州出身 人士들로서 耽羅時代를 이은 濟州學藝의 中樞라고 할만하다.

淡水契「耽羅誌」文學條에는 다시 李朝初期 濟州人으로 高得宗, 高臺弼, 高臺鼎, 高淳, 金良弼, 吳暹, 金晉鎔등이 수록되어 그들의 文學의 境地의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同書 筆苑條에는 다시 高得宗, 高得中, 金良弼등의 이름이 보인다.

三國時代, 高麗時代의 耽羅의 학예를 이은 李朝時代의 濟州學藝는 中央에서 派遣되어온 牧使 등의 獎學治績에 힘입은바도 많았거니와, 中央政界에서 黨爭 其他 政波에 밀려 濟州에 流配되어온 선비들의 影響이 컸으며, 李祖不服臣, 其他의 事情으로 因한 濟州移住入島로 因한 學風의 유입 또한 컸었으니, 僻地 濟州에 學風을 振作시킨 金淨, 宋麟壽, 金尙憲, 鄭蘊, 宋時烈등 世稱 五賢先生의 影響과 憲宗때에 濟州에 유배되어와서 濟州筆苑에 오른 朴癸唐, 金九五, 姜道軍등 서예가를 輩出시킨 名筆 金正喜의 영향등이 特記할만하나 李朝 初期以後의 학예에 關한 것은 本論稿 主題밖의 일이므로 割愛하고자 한다. 要는 이러한 모든 사실들이 오늘의 濟州道의 학예의 源流가 되고 있다는 事實만을 指摘해 두고자 한다.

## Ⅱ 耽羅의 言語

### 1. 考察對象의 限定

1. 1. 耽羅時代의 言語를 考察하는 첫 作業으로서 本章에서는 耽羅의 言語가 그 시초 과연 古代 韓語內의 어느 地域 方言에서 分岐되어 들어왔는가 즉 탐라언어의 源流가 어데 있는가를 탐구하여 보려 한다.

이 耽羅言語의 源流 문제는 탐라국에 어떤 氏族 내지는 部族들이 이동하여 들어왔느냐는 문제 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 이동하여 들어온 氏族들에 대한 規明은 考古學的, 人類學的 的 기타 여러분야에서의 考察이 있어야 할 것으로 그리 간단히 擧論해질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본다. 그러나 本章에서는 古文獻에 기록되어 있는 단편적인 耽羅國名 氏族名들을 解讀하고 그 를 援用하여 그것을 고대 韓語의 어느 지역의 部族名들과 비교 考察함으로써 탐라언어의 源流가 어데 있는가를 살펴 보려 한다.

이 作業은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耽羅國에 그 시초 이동하여 들어온 氏族 내지는 部族들 에 대한 다각적인 규명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어데까지나 한갓 假定的인 試圖에 불과한 것임을 미리 말해 둔다.

### 2. 國名「耽羅」등을 通해본 耽羅語의 源流

2. 1. 옛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나 또는 향토문화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地名연구란 實로 긴 요한 일이다." 英國에서 Walter William Skeat는 1901년 "The Blace—Names of Cambridge shire"라는 著書를 낸 뒤 이어서 地名의 命名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1923 년에는 몇몇 학자들과 British Academy의 후원을 얻어서 "English Place—Name Society"를 창설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 학자들과 교사들로부터 이 학회의 사업에 많은 협 조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그 지역의 考古學, 歷史學, 地理學 또는 方言學등의 연구에 實로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 제주도의 地名을 그 전반에 걸쳐 論하기 는 방대한 作業으로 창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한 本章에서 다룰 主된 課題도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다만 濟州道の 옛 名稱 耽羅國명을 문헌에서 골라내어서 그것들을 解讀하고 나아가 그 國名들을 통해서 耽羅言語의 源流를 더듬어 내어보고자 한다.

2. 2. 먼저 耽羅國의 명칭들을 열거해 보기로 한다. 李朝 孝宗四년 李元鎮 牧使에 의하여

1) Hans Krahe: Sprache und Vorzeit, Heidelberg 1954 pp. 1~2

워어진 「耽羅志」의 「建置沿革」條에<sup>2)</sup>

本九韓之一或稱毛羅……………或稱耽羅或稱  
耽牟羅在全羅道南海中……………

라 기재되어 있다. 여기 「毛羅, 耽羅, 耽牟羅」들은 제주도의 옛 명칭인 것이다.

또 서기 1918년 金錫翼씨가 지은 「耽羅紀年」의 「外書」章에는<sup>3)</sup>

或稱涉羅……………  
或稱僖羅……………  
或稱耽浮羅

란 表記들이 있는데 여기 새로운 명칭 「涉羅, 僖羅, 耽浮羅」들이 나타난다.

다음 「海東釋史卷一六」에는<sup>4)</sup>

耽羅亦曰躬牟羅其國在百濟南海中……………

라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 또한 새로운 名稱 「躬牟羅」가 나타난다 또 「耽羅紀年」에 의하면<sup>5)</sup>

……………又有一書 乃是上高麗表亦稱 屯羅島……………

라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시 「屯羅」란 새로운 명칭이 보인다.

이상에서 열거한 명칭만을 헤아려도 「耽羅, 僖羅, 毛羅, 耽牟羅, 躬牟羅, 耽浮羅, 屯羅, 涉羅」등 여덟가지이다. 이들 명칭 하나 하나에 대하여 다음에 解讀하여 가려 한다.

### 2. 3. 1, 「耽羅」에 대하여

「耽羅紀年」에<sup>6)</sup>

……………國號曰耽羅以來時初泊耽津朝新羅故也……………

라 기재되어 있다 高乙那 15代孫 高厚 高淸 등 三兄弟가 바다를 건너가 처음 「耽津」에 숙박한 데서 「耽羅」의 「耽」字를 얻었다고 한다. 믿을 수 없는 얘기이다. 15代孫 高厚時까지 耽羅國의 稱號가 없었을 리가 없다. 이것은 「耽津」에 처음 숙박하였기로 그 「耽」字를 取하여 「耽羅」라 한 것이 아니라 탐라국의 原名稱에 「耽」字를 借字해서 表音하여 놓은 것이라고 筆者는 보는 바이다. 그럼 「耽」字는 어떤 音에 借字하여진 것일까? 「耽」字의 字音부터 고찰하여 봐야겠다.

무릇 漢字를 빌려 우리말을 表記하는 경우 釋讀, 音讀 두가지 경우가 있었던 것인데 이제 「耽

2) 李元讓 耽羅志 1653 一面

3) 金錫翼 耽羅紀年 1918pp. 2~4

4) 崔南善 海東釋史卷一六(世紀一六) 朝鮮光文會 1911 p. 2

5) 金錫翼 ibid p. 4(「外書」章)

6) 金錫翼 ibid p. 8(「外書」章)

羅」의 경우에 있어서는 同國名의 다른 표기들과 對比하여 불 때 音讀으로 借字하여 졌다고 봄이 옳을 것 같다.

「集韻」, 「韻會」, 「正韻」들에 의하면

耽：都含切

이라 되어 있고 또

耽：徒含切 音覃

이라 되어 있다. 「都含切」또는 「徒含切」이니 音은 /tam/인 것이다. 「耽」字의 音이 ；/tam/이었을 것은 國語音韻史上에서 보아도 그리 수긍 된다. 즉 國語音韻史上에서 불 때 고대어의 子音體系에 있어서 閉鎖音의 無氣音 p, t, k에 대하여 有氣性을 徵表로 하는 相關의 對立을 이루어서 無氣音 對 有氣音의 體系가 存在했음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有氣音이 그리 흔히 쓰였던 것은 아닌 상싶다.<sup>7)</sup> 그러므로 이 「耽」字도 現代語音과 같은 有氣音/tham/이 아니고 /tam/이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달리 地名에서 그 用例를 보면 三國史記 地理志에 다음과 같은 地名 表記가 있다.

耽津縣一本百濟冬音縣 (三國史卷三六地理三)

이 「冬音」은 /tum/ 혹은 /wum/으로 읽혀졌을 것으로 본다. 이 「冬」이 /th/(트)음이 아님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이상으로서 「耽」字는 그 初頭音이 /tham/이 아니고 /tam/으로 읽혀졌을 것임을 능히 알 수 있다.

### 2. 3. 2. 「僮羅」에 대하여

「集韻」, 「唐韻」, 「韻會」에는

僮：都甘切

이라 있고 또 「正韻」에는

僮：都監切音擔

이라 되어 있다. 이 「僮」字의 音도 「耽」字와 동일한 音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이 「僮」字는 國語의 現代音에서도 그 音이 /tam/이므로 더 論難할 것 없다. 그래서 이 「僮羅」는 「耽羅」와 同音異寫에 不過하다고 본다.

### 2. 3. 3. 「毛羅」에 대하여

이 「毛」字는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 「集韻」에서는

7) 李基文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1961 pp.51~52

毛：陟格切

이라 되어 있어서 이「陟」이 現代音으로서는 「척」이지만 古代語音으로서는 「陟：知億切」이라 規定되어 있어서 「척」으로 읽을 것임이 틀림 없다. 또 한편 이「毛」은 「集韻」에

毛：關各切

이라 規定되어 있다. 이「關各切」은 「각」이다. 現代語音으로서는 「毛」의 音이 「탁」이지만 古代語音으로서는 여기에 表記되어 있는 바와같이 「각」이다. 「耽羅國」의 대표적인 稱號가 「耽羅」로 불리워지고 있고 이 「毛羅」를 「毛羅」의 誤字로 보는 견해가 있는 듯하나 그는 잘못이다.

### 2. 3. 4. 「耽牟羅」에 대하여

여기 「耽牟羅」의 「耽」은 위에서 論했고 「牟」에 대해서만 論하기로 한다. 「廣韻」에

牟：莫浮切

이라 있고 「集韻」, 「韻會」에는

牟：迷浮切 音謀

라 되어 있어서 그 音을 「모」로 읽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자를 빌려 古代國語를 표기하는데 있어서 「末音添記」라는 表記法이 있다.

「마음」(心)을 「心音」으로<sup>8)</sup>

「밤」(夜)을 「夜音」으로<sup>9)</sup>

「달」(月)을 「月羅」로<sup>10)</sup>

「구름」(雲)을 「雲音」으로<sup>11)</sup>

「가을」(秋)을 「秋察羅」로<sup>12)</sup>

와 같이 借字되어 있는데 이들 「音, 羅」가 이른바 末音添記인 것이다. 끝의 「秋察羅」의 「羅」는 末音再添記이다. 위의 例들은 歌謠에서의 것이지만 地名 表記에서도 그 例는 흔하다. 濟州島의 地名에

「넬개」를 「板乙浦」로<sup>13)</sup>

「넬은드르」를 「廣分坪」으로<sup>14)</sup>

와 같이 표기되었는데 이 「板乙浦」의 「乙」, 「廣分坪」의 「分」들이 다 그런 末音添記의 것들이

8) 梁柱東 朝鮮古歌研究 博文書館 1946 p. 535

9) 梁柱東 ibid p. 191

10) 梁柱東 ibid p. 326

11) 梁柱東 ibid p. 328

12) 梁柱東 ibid p. 799

13) 朝鮮古書刊行會 新增東國輿地勝覽卷三八 1912 p. 447

14) 朝鮮古書刊行會 ibid p. 465

다. 또

黑壤郡……今勿奴郡<sup>15)</sup>

高峯縣……達乙省縣<sup>16)</sup>

와 같은 地名들이 있는데 여기 「今勿奴郡」의 「勿」「達乙省縣」의 「乙」들이 역시 末音添記인 것이다. 本項의 「牟」字는 바로 이와 같은 「耽」의 末音/m/(口)音を 添記한 것이라 본다.

2. 3. 5, 「身牟牟羅」에 대하여

「身牟」字는 「身」의 俗字인데 「集韻」에

身：他甘切

로 되어 있어서 역시 그 音이 「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身牟牟羅」는 「耽牟羅」와 同名異寫임을 알 수 있다.

2. 3. 6, 「耽涉羅」에 대하여

여기서는 「浮」字에 대해서만 論하기로 한다. 「浮」字는 「集韻」에

浮：房尤切

이라 되어 있어서 그 音 「부」임을 알겠다. 그런데 古代語 特히 地名들에 있어서는 「日」음이 「口」音에 借字되어지는 일이 흔하다.

主夫吐郡—長堤郡<sup>17)</sup>

辛兌鉉씨는 이 「主夫吐」를 「님터」로 읽어서 「夫」字를 /m/音으로 보고 있다.<sup>18)</sup> 또

甲比古次郡—穴口郡<sup>19)</sup>

이 「甲比」의 「比」도 「穴」의 뜻의 末音과 대응시켜 /m/音에 借字된 것으로 읽고 있다.<sup>20)</sup> 이들로 보아서 古代國語에서는 「口」(m)音에 「日」(p)音字를 借字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本項에서의 「浮」도 /m/(口)音에 借字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증하여 온 바에 의하여 「耽浮」는 「耽牟」와 同一한 語音を 表記해 놓은 것이라 본다.

2. 3. 7, 「屯羅」에 대하여

「屯」字는 「廣韻」「集韻」에 의하면

屯：徒渾切，徒困切音頓

15) 中樞院調查課 世宗實錄地理志 1937 p. 71

16) 朝鮮古書刊行會 ibid(卷一一) 1912 p. 511

17) 中樞院調查課 ibid p. 39

18) 辛兌鉉 三國史記地理志의 研究 1958 p. 49

19) 朝鮮古書刊行會 ibid(卷一二) 1912 p. 567

20) 辛兌鉉 ibid p. 56

이라 되어 있다. 그音が「돈」「툰」임을 알 수 있다.

### 2. 3. 8. 「涉羅」에 대하여

「涉」字는 「集韻」에

涉：實攝切

이라 되어 있고 또 「唐韻」에는

涉：時攝切，丁ㄷ切音笞

이라 되어 있어서 그音が「점」임을 알 수 있다. 이 「涉」은 위에서論해온 「담」 혹은 「탁」系列의 語音과는 전혀 그系列을 달리한 語音이다.

朴趾源은

……東國方言島謂之刻而國謂之羅羅耽涉儻三音並與刻相類蓋云島國也<sup>21)</sup>……

라 하였다. 여기 「耽，涉，儻三音並與刻相類」라고 하여 「耽，儻」과 「涉」이 「相類」하다 하는 것은 附會에 불과하지만 「涉」을 「島」로 본 것은 옳은 해석이라 본다. 위에서 例示한 바와 같이 「唐韻」에서는 「涉」字의 音을 「笞」(섬)이라<sup>22)</sup> 注釋하였다. 「耽羅」의 異稱으로 「涉」字를 써서 「涉羅」라 한 것은 바로 島의 「섬」을 表記한 것이 아닌가 한다.

### 2. 3. 9. 「羅」字에 대하여

梁柱東博士는 新羅의 國號는 「斯羅，新羅，斯盧，尸羅」등으로 表記되었다 하고 이는 「서너」의 借字라고 하여 크게는 「東方·東土」의 뜻이고 좁게는 「東川·東部」란 地名에서 國名이 濫觸된 것이라고 하였다.<sup>23)</sup> 그러나 李崇寧박사는 地名，人名 表記에서 「羅」字는 /ra/로 規制하여 읽을 것을 戒하였다.<sup>24)</sup> 그리고 「羅」字는 initial에 쓰이는 일이란 別로 없고 medial 혹은 final<sup>25)</sup>에 나타난다고 했다.<sup>26)</sup> 그런데 보다 後期의 表現일지 모르나 地名 등에서 보면 「羅」字가 initial에 使用된 例도 많은 것 같다.

「羅帳山」<sup>27)</sup> 「羅州」<sup>28)</sup> 「羅溪洞」<sup>29)</sup> 「羅端山」<sup>30)</sup> 「羅邑」<sup>31)</sup> etc. 들과 같이 많은 例들을 볼 수 있

21) 金錫翼 ibid p. 6 (「外書」章)

22) 張三植 大漢韓辭典 1964 p. 1081

23) 梁柱東 ibid p. 41

24) 李崇寧 新羅時代의 表記法體系에 관한 試論 <서울火 論文集2輯 1955 p. 62-166>

25) L. Bloomfield Language 1957 p. 134

26) 李崇寧 ibid p. 89

27) 中樞院調查課 ibid p. 234

28) " ibid p. 169

29) " ibid p. 327

30) " ibid p. 362

31) " ibid p. 243

다. 이들 例 즉 韻文에서는 아무래도 /ra/로 읽혔을 것 같지는 않다. /ra/음이 아닌 경우 「羅」字는 결국 /na/로 읽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羅」字의 表記를 /na/로 읽을 경우 그것은 滿洲語등에서 「地」<sup>32)</sup>를 의미하는 /na/와 같은 말이 아닌가 한다.

2. 3. 10, 이상에서 解讀하여온 바에 의하면 「耽羅, 儋羅, 耽牟羅, 身牟羅, 耽浮羅, 壬羅, 屯羅, 涉羅」등 여덟 가지의 表記는 결국 네 가지로 읽혀졌다. 즉 「담나, 「닥나, 「둔나, 「섬나」들이다.

2. 3. 11, 그럼 다음으로 이 「담나, 「닥나, 「둔나, 「섬나」들은 각각 어떤 意義를 지닌 말들이었을까? 먼저 「담나」의 「담, 「닥나」의 「닥」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담」과 「닥」은 「高」의 뜻을 지닌 말이 아닌가 한다. 「담, 「닥」이 「高」의 뜻을 지닌다 함은 쉬이 짐작할 수 있다.

高句麗계의 地名에서 「달」 「담」이 「高」 또는 「山」의 뜻으로 쓰였음을 우리는 그 稀少한 例에서나마 찾아볼 수 있다. 「高」의 뜻인 「달」은 「達」字로 表記되어 있다.

高峯縣—達乙省縣<sup>33)</sup>

高木根縣—達乙斬<sup>34)</sup>

여기 「高木」은 「담」으로 읽을 것으로 본다. 「木」을 「담」의 末音添記로 읽을 것이다 하게 됨은 다음과 같은 例에 비추어 보아서이다.

工木達縣—云態閃山<sup>35)</sup>

이 例에서 볼 때 「工木」과 「態閃」은 對譯되어 있으므로 「工木」을 「곰」으로 읽어야 할 것이요, 따라서 「工木」의 「木」은 「곰」의 末音添記임이 確然하기 때문이다. 또 「高」의 뜻을 「닥」으로 表記하는 例는 地名등에서 흔하리라 본다. 濟州島 地名으로서

「楮旨」를 「닥모름」

「高山」을 「당오름」

이라 하는데 이 「닥모름, 「당오름」의 「닥, 「당」은 高의 意義의 말이라 본다. 滿洲語에서는 高의 「높다」가 /던/으로 되어 있고<sup>36)</sup> 蒙古語에서는 山頂, 峯을 「tologai」라 하며<sup>37)</sup> 土耳其語에서

32) 延大東方學研究所 同文類解(上) 1956 p. 14

33) 延大東方學研究所 韓漢清文鑑 1956 p. 24

34) 梁柱東 ibid p. 834

35) 朝鮮古書刊行會 ibid(卷一) p. 609

36) 延大東方學研究所 同文類解(上) 1956 p. 16

는 山을 「dog」라 한다.<sup>37)</sup> 이들 「던」, 「tologai」, 「dog」들은 古代國語 「닥」, 「담」, 「달」과 關聯 있는 말이라 보아진다. 또 日本語에서는 高의 뜻의 말을 「takai」라 한다. 이것은 古代國語의 「닥」語音과 一致되는 말이라 보아진다.

다음 「둔나」의 「둔」은 어떤 意義를 지닌 말인가? 濟州島 方言에 「둔지」란 말이 있다. 이 「둔지」는 平地보다 좀 「높은곳」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역시 「둔지」란 말에서의 「둔」도 高의 뜻을 지녔다 할 수 있다.

다음 또 「섬나」의 「섬」은 어떤 意義를 지닌 말인가? 이 「섬」은 물론 島의 「섬」이다. 그런데 이 島의 「섬」도 高의 뜻을 지닌 말이다. 濟州島 方言에서 「섬만이 높다」란 말이 있는데 이 「섬만이」의 「섬」은 결국 높게 쌓인 것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이상 「담나」, 「닥나」, 「둔나」, 「섬나」들은 모두 그 語音은 다르다 할지언정 어느 것이나 다 「높은곳」을 의미하는 말됨을 論하였다.

2. 3. 12, 다음 이 「높은곳」을 의미하는 「담나」, 「닥나」, 「둔나」, 「섬나」들은 古代韓語內的 어느 地域에서 들어 왔는가를 規明하여야 할 차례이다.

이 문제는 다음 項에서 「部族名稱」을 考察하고나서 함께 論하기로 한다.

### 3. 部族名稱을 通해서본 耽羅語의 源流

3. 1. 耽羅의 開國神話는 「耽羅紀年」에 보면<sup>38)</sup>

厥初無人物三神人首出于漢拏山北麓廣壤地毛興穴……長曰良乙那次曰高乙那三曰夫乙那……  
……吾王生此三女云西海中嶽降神子三人將欲開國而無配匹於是命臣侍三女而來宜作配以成大業使者忽乘雲而去三人以歲次分娶之就泉甘土肥處射矢卜地……良乙那所居曰第一徒高乙那所居曰第二徒夫乙那所居曰第三徒……

와 같이 記載되어 있다. 이 記錄에서 보면 「良乙那·高乙那·夫乙那」三氏族이 있어서 각기 一定한 處所를 占有하여 分居하여 왔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으나 이 三氏族은 차츰 部族社會를 이루고 나아가 原始 部族國家 形態로 發展하여 나갔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良乙那·高乙那·夫乙那」에 있어서 그 頭文字「良·高·夫」만 다를 뿐 나머지는 三氏族名稱이 모두 同一하다. 우선 本項에서는 「良乙那·高乙那·夫乙那」의 「那」에 대해서만 고찰해보기로 한다.

3. 2. 먼저 「那」의 讀法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集韻」에는

37) 李崇寧 音韻論研究 民衆書館 1954 p. 175

38) 日土協會 日土土日大辭典 東京 1936 p. 323

39) 金錫翼 ibid p. 6-7(「外書」章)

那：乃可切

이라 되어 있어서 그音が「나」임은 곧 알 수 있다. 古代人名, 地名表記에서 보면 이「那」字가 高句麗, 新羅의 人名에 드물게 나타나는데 모두 /na/音에 借字되었다.<sup>40)</sup> 日本 古歌謠에서는 이「那」字 使用이 흔한데 모두 /na/音에 借字되어졌다.<sup>41)</sup>

3. 3. 다음으로 上古代 韓國의 部族國家에 있어서 「나」(那)音 또는 「나」와 비슷한 音으로 어떤 氏族 또는 部族을 呼稱하던 部族國家가 있었던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다시 말하여 「耽羅國」의 「良乙那·高乙那·夫乙那」의 「那」와 同類의 稱號를 가진 部族國家가 달리 어디 있었던가를 알아 보기로 한다.

먼저 新羅 (斯盧)의 六村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古有六村一曰關川楊山村……是爲  
及梁部……二曰突山高墟村……是爲沙  
梁部……三曰茂山大樹村……是爲漸梁  
部……四曰鷲山珍支村……是爲本彼  
部……五曰金山加里村……是爲漢歧部……<sup>42)</sup>

등등으로 되어 있다. 이 新羅 六村의 形成이 어느 때로부터인지는 자세히 알 길이 없으나 그것이 部族聯盟體의 形態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及梁, 沙梁, 漸梁」등 六村의 名稱은 도저히 「良乙那」등의 「那」와는 通해될 수 없는 稱號라 본다.

다음 高구려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高구려의 部族社會를 構成한 重要한 部族은 다섯이 있었다.

「消奴部」「絶奴部」「順奴部」

「灌奴部」「桂婁部」<sup>43)</sup>가 그것이다.

여기 「消奴」「絶奴」「順奴」「灌奴」등의 「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集韻」에 의하면

奴：農都切

이라 되어 있어서 그音が「노」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奴」字의 古代人名, 地名들에 表記된 例를 보기로 한다.

黑壤郡……本高句麗今勿奴郡<sup>44)</sup>

40) 李崇寧 ibid 1955 p. 121

41) 大野晋 上代假名遣の研究 岩波書店 1953 pp. 255~257

42) 崔南善 新訂三國遺事 三中堂 1943 p. 43

43) 崔南善 ibid (卷六(世紀六)) p. 2

44) 中福院調査課 ibid p. 71

穀壤郡……本高句麗仍伐奴縣<sup>45)</sup>

梁柱東박사는 이 두 예의 「奴」를 「너」로 읽고 이 외 「內, 乃, 奈, 那, 惱, 盧, 路, 難」들도 「너」로 읽을 것으로 推定하였다.<sup>46)</sup> 그러나 李崇寧박사는 이 「奴」가 地名, 人名 表記에 쓰이어 「노」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sup>47)</sup>

여러개의 다른 漢字를 가지고 同一한 語音を 表記한다고 하는 것도 너무 不規則한 借字法이라 아니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國語表記의 漢字借字法에 있어서 漢字 한 글자면 언제나 한가지의 語音에만 借字된다고 限定하여 버리는 것도 어떨까 한다. 이 「奴」는 「노, 나, 너」音에는 通用하여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선 이 高句麗 五部族의 명칭이 「奴」字로 表記되다가 「那」字로 表記되어진 듯하다.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에 다음과 같은 名稱들이 郡에 郡에 보인다. 「沸流那」「椳那」「藻那」「貫那」「桓那」「朱那」「提那」들인데 이 중에는 중복된 名稱도 있을 것이나 여하간 먼저 든 五部族의 名稱과 이들 名稱과를 比較할 때 「奴」와 「那」는 同名異寫에 不 過하다 할 것이다. 「貫那」와 「灌奴」, 「提那」와 「絕奴」, 「朱那」와 「雁奴」를 그 發音이 近似함으로 해서 同一語의 表記라고 比定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3. 4. 高句麗 言語에서의 「奴」와 「那」가 同一語音 「나」의 表記이고 그것이 高句麗 社會를 構成한 重要한 部族의 명칭이다. 그런데 耽羅國의 「良乙那·高乙那·夫乙那」들은 耽羅國開國始祖인 氏族들이다. 그리고 「良乙那」등의 「那」를 「나」로 읽을 것으로 3. 2에서 推定했다. 이 高句麗의 五部族의 稱號와 耽羅國의 部族의 名稱이 同一한 語音 「나」로 表現되었다는 것은 우연한 일치라고 보아 넘길 것은 아닌 상심다. 이것은 分明히 高句麗의 部族과 耽羅國의 部族과가 言語적으로 같은 系列에 屬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시 말하면 耽羅國 部族의 言語는 原始 高句麗系의 言語에서 分岐되어 들어온 말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3. 5. 위의 2. 3. 12에서 論하게끔 되었었던 「담나, 닥나, 둔나, 섬나」들이 古代 韓語內의 어느 地域方言과 關聯이 깊은 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담나, 닥나, 둔나, 섬나」의 「나」를 중심으로 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이 「담나, 닥나, 둔나, 섬나」의 「나」는 역시 高句麗語의 地名에서 흔히 나오는 「奴, 惱, 壤, 內」등과 같은 혹은 비슷한 말이라 본다. 高句麗의 地名에 많이 쓰이는 「奴, 惱, 壤, 內」가 高句麗 五部族의 名稱에 나오는 「奴, 那」와 一致한다. 마찬가지로 耽羅語에서도 地名의 「나」와 部族名稱인 「나」가 完全 一致함을 본다.<sup>48)</sup>

이와 같이 國名, 地名에서 보아도 耽羅語는 高句麗語와 關聯이 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耽羅語의 源流는 原始 高句麗系 言語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45) 中樞院調査課 ibid p.18

46) 梁柱東 ibid p.40

47) 李崇寧 ibid 1955 p.86 p.121

48) 李基文 韓國語形成史<韓國文化史大系 V 1967 p.77>

3. 6. 이상 극히 간략하게 耽羅言語의 源流를 國名과 部族名을 通해서 더듬어 보았다. 그 結果 耽羅의 言語는 原始 高句麗系 言語에서 들어왔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序頭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考古學的, 人類學的의 기타 여러 분야에서의 考察과 아울러 行해져야 할 問題이다. 後日에 期約한다.

## ■ 耽羅의 宗教

### 1. 原始 信仰 形態

원시 시대에 있어서는 탐라에 고·랑·부 3성의 자손들 뿐이었지만, 그 후 표류 되어온 사람들 중에서 巫覡과 卜師가 있고, 그 자손들이 조상의 업을 계승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일종의 신앙 형태를 조성시킨 것이라 하겠다. 그 신앙이란 미신인 것이다.

우선 어린아이가 紅疫을 할 때에 그 부모는 Masern 濾過性 병원체에 의하여 일어나는 급성 발진성 전염병이라하지 않고 「소별상마누라」라는 疫神이 가정에 침입하면 어린 아이가 紅疫에 걸린다 해서 의약을 꺼리고, 또 유아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 역신을 존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여 약간의 제물을 소반에 갖춘후, 기도하기를(소별상마누라님께 발활(白活)을 드립니다. 철부지한 백성이오니 아기를 곱게 呼名點考만 하여 빨리 낫게 하여 주옵소서!) 홍역이 끝나면 역신을 전송한다는 의미에서 「손 낸다」고 하여 또 기도를 한다.

다음에 天然痘인 경우 濾過性 Virus를 병원체로 하여 접촉 또는 공기로 전염되는 병이라 하지 않고 「대별상마누라」라는 역신이 천연두를 가지고 왔다 해서 의약을 쓰지 않고 홍역때와 마찬가지로 기도를 한다.

回歸熱에 걸렸을 때 Sqi-rochaeta가 체내에 침입하므로써 일어나는 병이라 하지 않고, 분묘 속에 있는 귀신의 조화라 하여 환자를 데리고 산간에 있는 무덤을 찾아가서 소금을 撒布한후, 뒤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감기 걸려 열이 나면 「곧불손」이라는 귀신이 침범한 것이라 해서 기도하기를 (곧불손 곱게 나가주옵소서!) 여자가 임신했다가 아이를 낳을 때에는 「삼승할망」이라는 女神이 分娩하는 일을 장악해서 순산 난산을 좌우한다 하며,

어린아이를 업고 다닐 때에는 「엄계할망」이라는 여신이 아이를 보호해 준다 하고,

특히 탐라에서는 長方形인 竹籠을 「아기구덕」이라 하여 그 속에 어린아이를 눕혀 잠자라고 혼드는데, 죽음을 지키는 「구덕할망」이라는 여신이 있어서 乳兒를 키워준다고 하며,

어린아이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할 때에는 「저승할망」이라는 여신이 아이를 데리고 黃泉으로 간다 해서 어린아이가 병들어 죽을 때 고통 당하는 모습을 보고 비는 이야기가(저승할망

님! 아기를 괴롭히지 말고 곱게 데리고 가옵소서!)한다.

産母의 젖을 「삼승할망」이 관리한다 하여 아이를 낳은 후, 3~4일이 지나도록 젖이 잘 분비되지 않을 때에도 산모의 面前에서 젖이 잘 나온다 않나온다는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유아가 세 살이 지날때까지 어린아이를 양육해 주는 여신 「업계할망」 「구덕할망」에게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매월 음력 초 7일을 「할머니날」이라 하여 백반과 냉수며 백미를 그릇에 담아 소반에 올려놓고 焚香한 후 기도하기를(할머님으로써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버려지(벌레) 같은 인생이 오니 흉과 怪를 慈悲滅之하옵시고 아기를 잘키워 주옵소서!)한다.

어린아이가 높은 데서 추락 되거나 무엇에 몹시 놀랐을 때에는 넋이 났다하여 놀란 장소에 가서 약간의 음식을 차려놓아 기도하는 것을 「넋 들인다」고 한다.

토사곽란에 걸리면 邪鬼가 침범했다 하여 먹다남은 음식을 한 그릇에 모아 놓고 逐鬼하는 이야기(이야기)가 음식을 받고 雜鬼는 速去千里 速去萬里 물러가라!)하는 것을 退邪라고 한다.

병명을 알수없는 병에 걸렸을 때에는 무당을 데려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굿을 하는데, 그 굿을 「푸다시」라고 한다.

만성 맹장염, 복막염, 신장염, 간장염, 방광염, 폐결핵 등에 걸리면 船王日月祖上이 노한 것이라고 해서 巫覡 여러 사람을 불러다가 3일이나 7일 간을 마당에 큰 대를 세워놓고 여러 가지의 음식과 피륙, 紙錢등을 많이 준비한 후, 무격들이 북과 징을 치며 춤도 추고 해서 요란스럽게 하는 굿을 船王굿이라 하며,

시킴이 사망하여 장례식이 끝난 후, 무격이 하룻밤 사이에 하는 굿을 「귀양풀이」라 하고, 여터 날에 걸쳐 하는 굿을 「길 치는 굿」이라고 한다.

집을 지어 낙성한 후에 무당을 招致해다가 굿을 하는데 그 굿을 「성조풀이」라 하고, 화재 나서 鎮火한 후, 무당을 불러다가 하는 굿을 「불적 앓는 굿」이라 하며,

해 마다 음력 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무격을 데려다가 당(淫祠)에 가서 하는 굿을 「영등 굿」이라 하여 풍년을 비는 굿이라고 한다.

음력 2월 초하룻날 「영등할망」이 들어오면 2월 보름날에 나간다 하며, 음력 2월 1일부터 날씨가 따뜻하면 옷 벗은 「영등」이 들어왔다 하고, 일기가 차면 옷 갈 입은 「영등」이 들어왔다고 한다.

집 주위에 있는 구렁이를 길흉 화복을 주는 귀신이라 하여 밖칠성(外七屋)이라 하며, 庫房에 출입하는 구렁이를 역시 귀신이라 해서 안칠성(內七屋)이라고 하는데, 그 귀신을 위하여 음력 정월에 무격을 초치해다가 집에서 하는 굿을 冥感굿이라고 한다.

堂은 兪山堂 廣靜堂 廣壤堂을 비롯하여 7일당 8일당 9일당이 있어서 매월 7일에 7일당에 가는 사람과 8일에 8일당이 아니면 9일에 9일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 무당을 데리고 가서 크

게 굶을 하기도 하며, 가정 주부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혼자 가서 빌기도 한다.

당이 130여 개소가 있었다. 이조 숙종 28년(1702년)이 된즉, 당5백이라 했고, 무격을 4백여명이나 되었다는 것이다

金錫翼著 泰元日寫 耽羅紀年 P. 69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목사 李衡祥이 廣壤堂과 제주 전도에 있는 당 1백3십여 개소를 부수어 燒却시켜버린 후, 무격 4백여 명을 불러들여 곤장으로 치고 농사 지으라 해서 물러보냈다. (牧使李衡祥撤廣壤堂殿焚三邑淫祠百三十餘所杖巫覡四百餘名使各歸農)

탐라인은 무격들이 굶는 것을 직업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니, 미신을 좋아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지금 역시 그 미신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미신이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습관화해버린 것이 있다.

메주를 쑤거나 간장을 담그는데 卯日 午日 未日 戌日 吉日이라 하여 그 중에서 하루를 백하고,

대한으로부터 입춘 사이의 중간 7일간을 太歲神이 交替하는 新舊間이라 하여, 부엌이나 변소를 修築하든지 집을 옮기면 動土가 없다 해서, 嚴冬雪寒에 移徙하는 사람이 많고 집을 고치는 사람도 많다. 택일하는 사람과 卜師의 이야기를 잘 믿어 왔기 때문이라 하겠다.

## 2. 外來 宗教와의 관계

耽羅의 외래 종교라면 우선 불교이다. 불교는 석가여래의 교훈으로서, 불보살을 信奉하고 孝悌忠信을 지켜야 할 것은 물론, 善因善果 惡人惡果로써 因果應報가 歷然한 것이니, 모든 戒律을 지켜 六度萬行을 하고, 악한 일은 추호도 하지말며 (諸惡莫作) 선한 일 만을 하여(衆善奉行) 無量大福을 짓고, 모든 곱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 八正道를 실천에 옮겨야 되며, 大慈大悲한 마음으로 勇猛精進하여 위로는 無上大道를 구하고 上求菩提 밑으로 모든 중생을 濟度하며 下化衆生, 迷의 세계 輪廻 過失을 떠나 大道를 깨치고 轉迷開悟 모든 중생에게 成佛할 것을 권유하며 勸成佛道, 天森羅 地萬象이 다 무상하여 (諸行無常) 生者는 반드시 멸하는 법이니 (是生滅法) 생사가 없어지고 (生滅滅已) 아무 것도 없는 眞空妙有에 참다운 樂이 있다. (寂滅爲樂), 極樂世界란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모든 煩惱에서 벗어나 생사를 초월한 不生不 解脫 涅槃의 境地에 到達하는 것을 教理에 대한 대략의 骨子로 하고 있는 불교가 인도로부터 중국을 거쳐 고구려, 백제, 신라에 들어와서 약 5백년간 신라의 불교 向上時代를 이루었고, 탐라에 들어온 것은 고려 德宗 3년 (서기1034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탐라기년 P. 14에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德宗三年甲戌 冬十一月遣使如王京賀新王靖宗即位兼獻方物因參八關會)

德宗 3 年 (갑술년) 음력 11월에 탐라에서 使者를 파견하여 새 임금 靖宗 즉위식에 나가 祝賀하고 土産物을 헌납했으며, 八關會에 참석했다고 했으니 탐라의 사자에 의해서 불교가 전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八關會란 李能和編朝鮮佛教通史下編 P. 290~P. 291에

(高麗太祖天授元年十一月高麗設八關會有可言前主每歲仲冬大設八關會以祈福乞避其制麗王從之八關之戒本佛氏之教也曰不殺生曰不偷盜曰不淫泆曰不妄語曰不飲酒曰不坐高大床曰不着香華曰不自樂觀聽關者閉也罪禁閉八罪不犯也 昔新羅眞興玉聽僧惠亮之說始行八關之會今高麗太祖自謂得國必資諸佛之護衛燃燈以事佛)

고려 태조 天授 원년 음력 11월에 고려 조정에서 팔관회를 베풀었다. 어떠한 사무를 맡아 보는 자가 말하기를, 전의 君主는 매년 음력 11월이 되면 팔회관을 성대하게 베풀어서 복을 빌었다. 그 제도를 고려 시대 군주가 모두 따르게 되었다. 八關會란, 원래 불교의 의식으로서 殺生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술 마시지 않고, 높은 데에 앉지 않으며, 사치품을 몸에 지니지 않고, 야비한 노래를 듣거나 춤을 구경하지 않는 것으로서 여덟 가지의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옛적 신라 진흥왕이 惠亮이라는 僧侶의 말에 따라 비로소 八關會를 거행하였다. 고려 태조도 건국하게 된 것은 모든 부처의 加護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서 燃燈供養을 하며 佛陀를 받들어 모시게 되었다고 한 것이다.

탐라에 寺刹을 짓기 시작한 것은 고려 文宗 11년 (1057년) 가을 부터이다.

탐라기년 P. 15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 되어 있다.

(文宗十二年戊戌秋王欲於本國伐材造大船將通於宋 奏國家結好北朝契丹邊無警爲民樂其生以此保邦上策也且毛羅地瘠民貧惟以海產乘木道經紀謀生往年秋伐材過海新創佛寺勞弊已多今又重困恐生他變王從之遂寢)

文宗 12년 (무술년) 추월에 문종대왕이 본국에서 나무를 베어 큰 배를 만들고 宋나라에 출입 하겠다고 하였다. 한 신하가 아뢰기를 (국가 끼리 서로 사이가 좋고 북쪽 변방에서 글안 (契丹) 이가 침략해 올 우려도 없으니, 백성을 편케 하고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또, 탐라 (탐라) 는 토지가 肥沃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구차하며, 겨우 해산물을 가지고 목선으로 육지에 왕래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간 해 가을에 벌목하여 바다를 건너 가서 처음으로 걸을 짓는 데에 백성들이 지칠대로 지쳤는데, 금년에 다시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려면 아마 무슨 괴변이 생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대왕은 그 말을 듣고 벌목하는 일을 중지했다고 한 것이다.

金斗奉編 耽羅誌 P. 91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高麗文宗十二年王欲於耽羅造舟以通于宋 議曰國家結好北朝邊無警爲此保邦上策也且耽羅地瘠

民爰惟以海產木道謀生往年伐材渡海新剏佛寺勞弊已多今又重匡恐生他變請寢其事玉從之)

고려 文宗12년에 문종대왕이 탐라에 가서 벌목하여 배를 만들고 송나라에 출입하자고 했다. 어느 신하가 아뢰기를 (국가 끼리 서로 사이가 좋고 북쪽 변방에서 침략해 올 우려도 없으니 국가를 보전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또 탐라는 토지가 비옥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빈곤하며 겨우 해산물을 가지고 목선으로 육지에 왕래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간 해에 벌목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새로 절을 짓는데에 백성들이 매우 지쳤는데, 금년에 다시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려던 아마 무슨 꾀변이 생길지도 모르오니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한즉, 대왕은 그 의견에 따랐다.

이 기록을 보면 탐라에 있는 큰 나무를 베어 배에 싣고 육지로 건너가서 寺刹을 창건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바람이 많은 탐라에 굵고 곧은 나무가 많이 없다. 그러므로 탐라의 나무로는 훌륭한 절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탐라 기년 P. 15에 기록된 것은 내륙에서 벌목하여 배에 싣고 탐라에 건너와서 절을 지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본국에서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고 송나라를 출입하자는 대왕의 의견에 대해서 탐라의 백성들이 지나간 해 절 짓는 데에 지칠 대로 지쳤으니 금년은 그만 두자는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육지의 나무를 베어 탐라에 건너와서 절을 지은 것이 분명하며, 문종21년에는 문종대왕이 탐라의 나무를 베어 배를 짓고 송나라에 출입하자고 한 것이다.

고려 문종11년 가을철부터 짓기 시작하여 문종12년 (1058년)에 준공된 사찰이 중문면 하원리 法華寺라고 한다.

1916년에 河源里民들이 목욕할 때와 빨랫돌로 사용하기 위하여 大雄殿이 있던 자리에서 주춧돌 20여 개를 발굴해다가 하원리 法華洞에 있는 샘물가에 즐비하게 깔아 놓았는데, 큰 것은 직경이 1m 이상이나 된 것으로 봐서 법화사에는 참으로 웅장한 건물이 여러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지금은 주춧돌 큰 것이 직경 85cm와 작은 것 합해서 11개가 남아 있을 뿐이다.

고려 때 지은 사찰이 130여 개소나 되었던 모양이다. 그 중에서 外都里 水精寺와 三陽里 元堂寺는 元나라에서 지었다고 한다.

탐라기년 P. 30~P. 31을 보면,

(忠烈王庚子二十六年元大德四年元剏水精寺于都近川)

고려 忠烈王 庚子26년 원나라 대덕 4년 (1301년)에 원나라에서 수정사를 都近川 즉, 의도리에 지었다고 하였다.

승려에는 慧日法師가 유명하다.

탐라지 P. 86에 기록되어 있기를,

(僧慧日麗末山房法僧西遊中國鉢傳梵備尤工於詩其所題詠多見於本誌)

해일법사는 고려 말엽 때 山房宿寺에 살고 있는 법사였다. 중국에 들어가 高僧 밑에서 불경을 배워 불법을 전하여 받았다. 더우기 그는 시를 잘 지어서 탐라지 여러군데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였다.

중문면 하원리 법화사에 대하여 지은 그의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法華庵畔物華幽曳竹揮松獨自遊若問如來常住相梨花亂落水奔流)

법화사 곁에 있는 모든 풍경이 아름답고 그윽하며, 우거진 대와 낙락장송은 아무런 구애도 없이 즐겁게 놀고 있는 듯 하구나! 만일 누구가 佛陀 常住不滅의 경지를 묻는다면, 배꽃이 어지럽게 떨어지고 물은 급히 흘러내리는 곳이라 하겠다.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간단하게 잘 표현한 시라 할 것이다.

탐라에 130여 개소나 되는 사찰이있었다고 하니, 승려 수도 260여명 이상이었을 것이며, 신지역시 그 수가 많았을 것이다.

탐라인은 惡衣惡食으로 절약 겸소 근면해서 결인이 거의 없었다는 점과 특히 도적이 없었다는 것은 대문을 우물정자 (井) 처럼 서 너 군데 구멍뚫은 돌이나 나무 기둥을 양쪽에 세워 놓고 그 구멍에 둥근 나무를 더밀어 우마가 자유로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인데, 그것을 井門둥근 나무를 정남 (정나무) 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농촌에 가면 지금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

行人을 보면 농토에서 일하던 농민들이 기립하여 공손히 밥 먹고 가라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러한 풍속은 日政 때까지 계속 되었던 것이다.

윗 사람을 섬겼고 이조 때가 되어 효자 열녀도 많이 생겼다. 이러한 미풍 양속이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심오한 불교의 교리를 연구한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 신앙이란 祈福을 벗어나지 못했고, 巫俗에 대한 미신은 여전히 盛行되었던 모양이다.

이조 숙종28년 (1702년) 이 되어 제주목사 이형상이가 排佛崇儒의 정책에 따라 130여 개소나 되는 寺刹을 모조리 불태워 버렸다.

탐라기년 P.69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肅宗壬午二十八年清康熙四十一年牧使李衡祥毀焚三邑佛宇百三十餘所)

#### IV 結 論

耽羅는 韓半島 南쪽 海上에 위치한 섬나라로서 그 開國年代는 分明히 밝힐 수 없으나 그 先民社會에서 이미 韓半島와는 交流하였던 事實을 推定할 수 있으며, 5世紀頃을 前後한 時期(百濟文周玉 2年은 西紀 476年)부터는 韓半島內的 新羅, 百濟등과는 公的 교류가 있었을 뿐

아니라, 高句麗, 日本 및 漢土하고도 私的 교류는 있었음을 確認할 수 있다.

學藝面에서 이를 考察하였을 때, 耽羅는 이 地域이 지닌 宿命的인 特殊한 地理的 環境과 歷史的 與件으로 말미암아 그 後進性を 脫皮할 길이 없었음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겠으나, 韓半島에 三國이 鼎立하고 있을 무렵 이미 公的, 私的인 교류를 통하여 그들의 文물을 받아들인바 되었으며, 韓半島에 麗朝가 서게 되었던 10世紀를 前後한 時期에 와서는 麗朝의 影響力도 컸었을 뿐 아니라, 점차로 耽羅內에 京師의 學風이 펼쳐, 耽羅出身 人士들이 麗廷에 出仕하는 길도 트였던 것이다.

麗代의 耽羅는 三別抄의 亂 등 大小 事件이 많았으나, 이러한 事件들은 京師의 人士들의 來往을 促求한 結果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京師 學風 流入의 계기를 만들고 있음도 看過할 수 없다.

15世紀를 前後하여 麗朝의 뒤를 이은 李氏王朝는 耽羅 (濟州) 에 선비 養成機關이라 할 수 있는 鄉校를 짓고 人材를 登用하는 등 적극적인 文化정책을 씀으로써 中央에 까지 이름을 떨친 學者와 文人도 많이 輩出되었던 것이나, 李朝 初期까지는 이 地域 獨特한 文學 예술이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늘 京師 學風을 追從하기에 汲汲하였던 것으로 보아진다.

言語面에서는 耽羅의 國名 (즉 地名) 을 통해서 考察해보고, 또 耽羅國의 開國始祖들이라고 일컬어지는 「良乙那」등 部族의 名稱을 통해서 볼때, 이는 高句麗語와 關聯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耽羅國의 部族名稱이 高句麗國의 五部族 名稱과 關聯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耽羅言語의 그 源流는 高句麗語에 있지 않은가 보아진다.

또한 宗教面에서 考察해보면, 耽羅의 原始信仰이란 오늘의 觀點에서 이를 볼때, 이는 巫覡과 卜師에 依해서 造成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迷信인 것이며, 그 後 深奧한 教理를 지닌 佛敎가 傳來되고 元나라와 高麗 朝廷에서는 많은 寺刹을 創建하여 적극적인 布敎策을 씀으로써 佛敎는 크게 興旺했지만 教理를 研究한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 信仰은 祈禱信仰이어서 역시 根本的으로 는 迷信을 脫皮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 —Summary—

Studies in the Art and Science, Language,  
and Religion of TamnaChin Won-il  
Hyon Pyong-hyo  
Yang Chung-hae

Tamna, the old name of Cheju Province of Korea, was in old times a sea-girt tribal state south of the southern tip of the Korean peninsula.

Although there is no clue as to the exact date of its foundation, Tamna is presumed to have been in contact with the mainland even in the greatly remote past, and about the fifth century the government of Tamna had some formal connections with those of Shilla and Paekjae, and some inhabitants of the island made long voyages for commercial or other purposes as far as Koryo, Japan, and China.

Owing to its geographical situation and historical background, ancient Tamna was backward in every aspect of its civilization. On the other hand, however, this peculiar environment has served to preserve most of the antiquities of Tamna which are now attracting an increasing attention of the students concerned. This article tries to show some aspects of the ancient culture of Tamna by studying the origins of its art and science, its language, and its religion.

The art and science of Tamna was destined from the beginning to be far from the main stream of those on the mainland because of its geographical location, that is, on isolated island state. However, during the period when the Korean peninsula was divided into three kingdoms, Shilla, Paekjae, and Koguryo, Tamna began to introduce the advanced culture of the mainland through formal and informal intercourse with the mainland. About the tenth century when the whole peninsula was put under the rule of the Koryo dynasty, Tamna was influenced by a scholarly atmosphere in the capital of Koryo with the Koryo's increasing influence upon the island, and produced some men of learning who placed himself at the service of the royal court. This tendency toward learning increased during the period from the tenth to the fourteenth century. Although there broke out on the island during the period an armed rebel, called the Rebellion of Sambyolcho, against the central government, it also made a favorable

opportunity for the island to be in closer contact with learned circles in the capital of the Koryo kingdom. During the fifteenth century Tamna began to enjoy more scholarly atmosphere than before. This is because the Yi dynasty following Koryo established "hyanggyo's" or Confucian schools with a view to promoting the love of learning. As a result Tamna produced a number of learned men. But almost all of them followed the course of scholars in the capital, scarcely paying attention to literature and art peculiar to the island.

As for language as spoken in Tamna, it seems to have come down from the language of ancient Koryo. Tamna the name of the island state, and Yang Eulla, the name of one of the three ancient tribes of the island, show tha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uthors' investigation, the language of Tamna is closely related with that of primitive Koryo. This close relationship is to be seen especially between the names of tribes of Tamna and those of the five tribes of ancient Koryo.

The primitive religion of Tamna was shamanism in which shamans and conjurers played decisive roles. Later Buddhism was introduced into the island and during the Koryo dynasty Koryo and Yuan, an ancient kingdom of China which once occupied Tamna, both adopted a pro-Buddhist policy and propagated Buddhism on the island. As a result, Buddhism thrived all over the island. However, most priests did not apply themselves to the Buddhist doctrine, but was chiefly engaged in prayer for earthly happiness of inhabitants of the island. Consequently it can be said that religion of those days was a fusion of Buddhism and shamanism.